

가톨릭마산

연중 제5주일
2025년 2월 9일
제2656호

옥포성당
since 1926. 5. 30.

본당주보 : 성 김대건 안드레아
현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12길 22



구 옥포성당



성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6,1-2,3-8
화 답 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5,1-11(또는 15,3-8.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 음 루카 5,1-11

영 성 체 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남하늘 엘리시오 신부
명서동 보좌

“하느님의 거룩함을
마주할 때,
우리의 ‘죄’와 ‘나약함’은
더욱 분명해지고,
그럼으로써 완전하신 분께
겸손되이 의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정화, 정화의 부르심

오늘 독서와 복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예언자, 바오로 사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하느님을 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과정에서 그들은 모두 주님을 뵈고 두려워했습니다. 독서와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두려움이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스스로를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기에 주님을 뵈고는 “나는 이제 망했다”하고 말했습니다(이사 6,5). 바오로 사도는 강한 빛으로 눈이 멀어 두려움과 무력함을 겪으면서 산 이와 죽은 이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사도 9,3-9,22).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힘 앞에서 자신은 죄 많은 사람이니 떠나주십사고 말했습니다.

완전하신 분 앞에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나약함 때문입니다. ‘죄’는 나약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사야 예언자와 바오로 사도, 그리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완전하신 분을 뵈고서 자신의 나약함을 분명히 직시하고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통해 ‘죄’를 탓하시거나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없애시고 ‘죄’를 비롯한 ‘나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을 마주할 때, 우리의 ‘죄’와 ‘나약함’은 더욱 분명해지고, 그럼으로써 완전하신 분께 겸손되이 의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에 모두가 각자 나름의 나약함과 한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 자만과 교만으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나약함을 공격하거나 한계를 지적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약함과 한계로부터 하느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약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은총을 더욱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함 가운데 항상 함께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잘못된 ‘죄’와 나약함을 진실되이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예언자, 바오로 사도와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당신의 거룩함으로 ‘정화’ 시켜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넘치도록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신께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면서, 인간적인 나약함에 빠지기보다는 용기와 은총으로 하느님의 거룩함 속으로 힘차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한 호흡이 되어

양지미 유스티나 시인 / 가톨릭문인회

하느님께서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창세 2,7).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곳에 입문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향심기도를 드린다.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허리만 꼴꼴이 세우고 전신에 힘을 뺀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불어 넣으신 입김, 그 입김이 우리를 살린다. 나도 주님의 숨을 길게 들이마셔 머리부터 시작해 조금씩 숨을 내뿔으며 전신을 정화시킨 뒤 발가락 끝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몇 차례 한 뒤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 명상을 시작한다. 내가 선택한 단어는 '의탁'이다. "주님께 저를 의탁합니다. 저를 의탁합니다. 의탁합니다"를 계속 되뇌다 보면 명상에 깊이 빠져들어 간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기지 못하는 날도 많고 깜빡 잠이 들 때도 있다.

친구의 딸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지만 천사 같은 미소를 가졌던 아이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30년 동안 지극정성 딸을 돌본 친구는 급작스런 이별에도 오히려 담담했다. 최선을 다했으니 아쉬움도 없고 무엇보다 좋으신 하느님께로 갔으니 여기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냐며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오랫동안 불멸의 명성을 부러워했다. 세상에 태어나 절대 잊히지 않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내 경외의 대상이었다. 자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 한평생을 살다 죽는데 너무 쉽게 잊혀 버리면 억울하지 않겠냐 싶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의미이고 성공이라 여겼다. 잊지 않으려 할머니, 아버지를 비롯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간직하고 특하면 이름을 불러내 추억했다. 그리고 내 작은 이름을 키우기 위해서도 마음과 몸이 바빴다. 그날도 기도를 시작하며 긴 호흡을 하는데 갑자기 잊히지 않고 오래 기억되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세상을 살다간 한 존재의 영혼은 잘게 부스러져 마침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우주의 질서에 맞지 않을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다간 사람들, 친구의 딸처럼 너무 쉽게 잊혀 버리는 착한 사람들이 마침내 공기처럼 주님 숨결에 곱게 스며들어 살아있는 누군가의 호흡이 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흘러갔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숨을 쉬고 내뿔으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고 그 숨을 거두는 것도 그분이다 라는 것이 내 속에서 점점 선명해졌을 뿐. 한 사람이라도 나 덕분에 편히 숨 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온 이유로 충분하다는 말을 기억하며 하늘로 돌아간 사랑하는 영혼들이 최선을 다해 빨리 잊히고 작아지라고 이제는 기도한다.

잊히지 않는 영혼으로 떠돌지 말고 하루빨리 사라지라고 마침내 주님의 입김처럼 깨끗한 호흡이 되어 들이마셔지고 내뿔 어지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부가 밀고 당기며 이룬 평협 손춘수 베드로 · 여협 김성악 안나 회장

황광지 가타리나 / 가톨릭문인회

말년의 손춘수·김성악 부부는 빛누리집이 옛집을 정리할 때 거기서 모셔온 성모님을 '수호자'로 모시고 자나 깨나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동시설인 빛누리집에 늘 도움의 손길을 전하던 후원자였다. 성모상을 선물로 받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며, 부부가 성모님 앞에서 까떼나와 묵주기도와 저녁기도를 바쳤다. 사회생활과 교회 활동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남편도 기도 시간을 지나칠까봐 주의를 기울이며 서로를 지키는 시간을 보냈다.



김성악 안나

옥봉동성당에서 관면혼배

김성악은 두 살 때 온 가족이 일본 니가타현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스무 살이나 터울이 지는 큰오빠가 심한 병을 앓으면 실의에 빠졌을 때 가톨릭을 만나게 되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집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성당에는 독일 신부가 사목했는데 안

나의 집에 드나들면서 친밀하게 지냈다. 세례를 받은 때가 초등 4학년이었다. 독일 신부의 사랑을 받으며 성당에 다니다가 여고 2학년 때 해방을 맞으면서 고향인 진주로 돌아와 옥봉동 신자가 되었다. 다시 진주여고에 다니게 되었고, 성당에서 학생회장을 맡으며 친구들을 전교해서 포래들과 참 재미있는 청소년기를 보냈다.

김성악은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1950년 손춘수를 만났다. 사람됨에 끌려 결혼을 결정했으나 정통 유교집안의 배우자를 맞이하자니 난관이 컸다. 쉽게 신자가 되겠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총각은 물론이거니와 시아버지 될 사람까지 본당신부에게 불려 다녔다. 우여곡절 끝에 옥봉동성당에서 관면혼배를 치렀다. 시아버지는 경건한 예식에 감명을 받았고, 며느리와 사돈을 신뢰했다. 손춘수가 먼저 입교하고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세례를 받더니 연로한 어른들은 대세를 받을 정도로 온 집안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

3월에 결혼한 후 곧 6.25전쟁이 나서 남편 손춘수의 징집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 다니던 남편은 결국 둘째 아들을 낳고 누운 아내를 두고 떠나 해군장교로 진해에서



복무했다. 제대 후에는 마산에서 정착했다. 시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한일합섬이 창립되면서, 그리로 자리를 옮겼다. 손춘수는 한일합섬을 발전시킨 일등공신이었다.

교구 바자회를 만들어내다

손춘수·김성악 부부는 마산교구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성악은 여성연합회가 창립되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물질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활동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다.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다. 여성연합회 창립 멤버로 출발하여 5,6,7대 회장을 역임했고 한 차례 물러섰다가 9대 회장도 맡아 여성신자들을 이끄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김성악은 스스로 자금마련을 하자는 취지로 여성연합회 바자회를 출발시켰다. 1980년 3월, 성소후원회 활동과 불우환자 치료비 돕기를 목표로 교구 전체가 음식을 폭넓게 장만하여 지역의 축제처럼 펼치자고 기획했다. 민을 수 있는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금을 만들고, 그 돈을 요긴하게 써 보자고 결의했다. 교구



2011년 그라츠사절단 환영

의 뜻이 본당으로 전해지고, 여성연합회 바자회는 튼튼하게 구축되었다.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이 연중행사를 해마다 기다리는 비신자들도 많았다. 오랫동안 오동동 구 교구 청마당은 바자회 장소로 널리 알려져 이름을 날렸다.

김성악 안나는 본당에서도 까리타스, 제대회, 성모회, 여성협의회 회장을 맡아 봉사했다. 교구에서는 에콰도르 선교후원회를 결성하여 지원하는 일이나 성소후원회를 운영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섰다. 뿐만 아니라 은퇴신부 후원을 위한 아가페회를 조직하여 일일이 찾고 나누는 일에도 솔선수범하며 그의 에너지는 마구 분출되었다. 공동체를 무척이나 아끼며 혼자 일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호응을 끌어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재를 알아보는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하였다.

마산교구를 탄탄하게 하려는

손춘수 베드로는 상남동성당에서 사목회장을 맡았고, 월남동성당으로 옮겨서도 사목회장을 역임했다. 마산교구 차원에서는 꾸르실로 주간을 맡아 1988년 10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이끈 다음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듬해 1월 평협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렇게 맡은 회장직은 연임하여 4년 동안 교구의 구석구석을 챙기고 보듬어야 했다. 회장 재임 중 자매교구인 오스트리아 그라츠교구에도 두 번 방문하여 우리 교구 신학생과 사제를 격려하고, 관계를 결

속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 뒤에도 그라츠자매교구원회에서 오래 활동했다. 마산교구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과 자매결연40주년 행사를 위해서도 그라츠사절단을 맞이하고 행사를 지원했다. 어디를 가나 한결 같은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말년의 김성악 안나 회장은 “사랑에게서 나서 사랑으로 살다가 끝내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차동엽 신부의 글을 자주 입에 올렸다. 남편 베드로가 옆에 있어 제일 행복하다던 안나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2013년 1월 17일 81세에 선종했다.

일심동체가 되어 손잡고 살다가 홀로 남은 손춘수 회장은 5년을 더 살며 쓸쓸한 시간을 보냈다. 3남2녀 중, 가까이 사는 둘째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나 약간의 치매와 노환에다 외로움이 더해졌다.

2016년, 막 마산교구장으로 착좌한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출신 본당인 월남동성당을 방문했다가 예정에 없던 손춘수 회장을 방문했다. 배 주교는 본당에서 부족한 신학생을 보듬으며 신부가 되도록 이끌어준 어른에게, 교구에 헌신적으로 몸 바쳐 일했던 어른에게 큰절을 올렸다. “어르신이 챙겨주셨기에 이렇게 주교가 되어 왔습니다.”라고 예를 갖추었다. 이렇게까지 큰 행복을 안은 손춘수 베드로 회장은 2018년 5월 21일 88세로 선종하여 아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주님 곁으로 떠났다.

교구/본당

또래사도 연수

일시: 2월 13일(목)~15일(토) 2박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전례분과위원 연수-거제·창원지구

일시: 2월 15일(토) 13:30
장소: 마산교구청

가정분과위원 연수

일시: 2월 15일(토) 14:00
장소: 마산교구청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피정, 1학기 개강미사 및 임명식

일시: 2월 15일(토)~16일(주일) 1박2일
장소: 성심원

제491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2월 16일(주일) 13:00
장소: 마산교구청

전례분과위원 연수-마산·진주지구

일시: 2월 16일(주일) 13:30
장소: 마산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일시: 2월 12일(수) 19:00
장소: 마산가톨릭문화원

가톨릭여성회관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안내

대상: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청소년, 탈북청소년)
시간: 매주 월요일(협의 가능)
장소: 가톨릭여성회관(마산역 앞)
문의: 055-255-5080 womencenter@hanmail.net

체나콜로 다락방 2월 기도모임

일시: 2월 17일(월) 13:00~15:00
장소: 마산교구청 2층 성전
준비물: 메시지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시티(11:06)-현대주유소(11:16)-구교구청(11:40)-마산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8771-4577

기 타

자비사도회 2월 월례회

일시: 2월 22일(토) 14:00~16: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내용: 하느님 생명 체험
강사: 그리스도수도회 김규한신부
준비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의탁합니다.(소책자) 미사 준비
문의: 010-5883-4413

성모솔숲마을 효소단식피정

금액: 15만원
기간: 매일 셋째주 목~일요일(3박4일)
3월 13일(목)~16일(주일), 4월 17일(목)~20일(주일)
문의: 010-3209-3955(문자접수)

2025년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대상: 초등부(초3~6), 중고등부(중1~고3)
신청일: 2025년 02월 28일 금요일
신청방법: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고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일시: 3~11월(주일) 16:00~18:00 (12만원*3회)
지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문의: 010-4598-6912

예수회센터 불학기 비대면 강좌 / 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영성과 철학상담: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 화요일 19:00~21:00 12주 과정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9:30~22:00, 13주 과정
(금요일은 20~30대 청년대상)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3월 15일(토) 11:00~16일(주일) 16:00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팔만원정 (사전접수자만 피정가능)
문의: 010-5490-5345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 (화) 14:00~20:00
장소: 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 2층
내용: 정서적 고통, 인간관계, 면담고해성사
상담자: 강운철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33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
(2025년 2월 11일)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주례	문의
교 구	2월 10일(월) 19:00	남성동성당	마르코복음서의 새로운 언어	김영철 베드로 신부 (전국성령 담당)	김영철 베드로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월 15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대성의원 강남장모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수목장·평장묘 터 알선
010-4848-9944
마산회원구 와성남 18길 2, 1층(와성동)
김 중 운(클레멘스)

마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4월 22일 다낭 5일
4월 28일 홍콩 마카오 4일
4월 1일, 4월 15일 제주도(추자도) 3일
3월 11일 전주광주 3일

michaeltour.co.kr
정상훈 마카엘 010.8650.969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식재료 100% 국내산
육지도의 특별한 선물 육지도 **전복죽**

무료 배송 (도서제외)

1. 300g(12팩) 90,000원 → 55,000원
2. 300g(6팩) 45,000원 → 35,000원

계좌: 농협 351-1157-0988-93 김금자혜녀촌
010.3796.7888/055.644.0277 김금자 엘리니넷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2박3일 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3박5일 120만 원
북해도, 나리키 오사카 도쿄, 아타카 3박4일 120만 원

김해공항출발도 가능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오완수 비오로

교구 연령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마산교구연령연합회(담당 : 최훈 타대오 신안동 주임, 회장 : 정승환 예로니모, 신안동)는 2025년 1월18일(토) 14:00~17:00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9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본당 연령회 임원, 봉사자 220명이 참가하여 개회식에서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새해의 희망찬 설계를 위해 지혜와 힘을 보태자!”는 담당사제의 인사와 함께 연령회가 가야 할 방향과 운영 개선에 대한 기초 강의가 있었으며, 안전 토의를 통하여 본당 연령회 회칙 표준안, 연령회 운영 규정 표준안, 연도강사 양성계획, 연습봉사자 양성계획 등 안전을 심의하고, 장례미사를 드리지 않는 날, 산골에 대한 한국교회 지침, 연합회비 인상 등 기타 토의 및 공지 사항이 전달되었다.

교구 제243차, 244차 꾸르실료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담당 :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 주관 : 주 성 알렉산델)에서는 제243차 남성 꾸르실료(1/9~1/12 차수회장 : 김종인 유스티노, 완월동), 제244차 여성 꾸르실료(1/16~1/19 차수회장 : 이지영 아네스, 완월동)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꾸르실료에서는 남성 25명, 여성 38명이 수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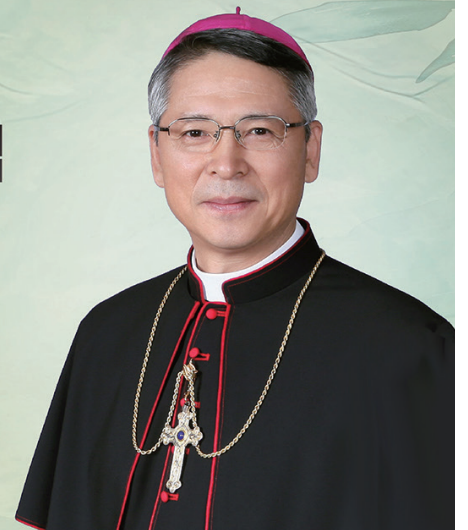


천주교 마산교구 제6대 교구장 이성호 리노 주교 착좌식

2025년 2월 12일 (수)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 3층

cpbc 가톨릭평화방송 TV · Youtube LIVE

cpbc 위성TV: 184번 cpbc IPTV: GEVIE TV 231번
Btv 297번
U+TV 274번



혼인 성사와 교회법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 청소년국장

혼인이 왜 성사(聖事)인가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결혼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여기며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비혼의 비율이 20%가 넘어가고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는 저출산으로 연결됩니다. 즉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면서 결혼의 중요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육아 문제로 발생하는 경력단절,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 누군가의 부모로서 가정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오롯이 개인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하고 자신의 경력에 더 집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혼과 자녀출산을 통한 더 큰 가치실현의 인식과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변화는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교회법 제1055조 1항)라고 합니다.

‘성사(聖事)’라는 글자 그대로 혼인은 거룩한 일, 곧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표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성사는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찾고,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며 부부는 서로에게 하느님 은총의 표지가 되어 배우자가 나에게서 하느님 모습을 찾고 느낄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하는 삶이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혼인을 통해 드러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혼인을 인륜지대사를 넘어 천륜지대사(天倫之大事)로 여깁니다. 두 남녀의 결합은 인간이 맺어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이며 부부의 혼인 서약은 하느님에게 이 사람을 평생의 배우자로 여기며 가정교회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사목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법 제1063조에서는 “영혼의 목자들은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지켜지고 완성으로 진보하도록 자기 소속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며 사목자의 의무에 대해 아래와 이야기 합니다.

1.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 교육, 사회 홍보 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2.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한다.
3. 혼인의 풍성한 전례 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의 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
4.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혼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목적 배려와 교육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는 혼인의 성사가 더 큰 기쁨과 은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겠습니다.